

## 세계화 시대의 한국 산지촌에 관한 이론연구

오 남 현

미국 아이와 주립대학교

### A Study on the Theory of Mountain Village Region in Korea of Globalization Age

Oh, Nam-Hyun

Research Scholar, Iowa State University

**ABSTRACT** : The pro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a theory on the research of mountain village region in korea of globalization age. The theory of this study is over-depopulation region study,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theory and resident organization, localities and new regional studies The case of over-depopulation region study, which population and land use of mountain village region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re changed by external factors. However, the case of some region is changed by internal factors of community residents. The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theory and have approached by investment policy of authorities of the mountain village region development and resident organization. The development of mountain village region have to described simultaneously both behavior strategy of community residents and investment policy of the authorities. According to localities and new regional studies, which agricultural products of mountain village region is extended to big-scale city by the progress transportation-communication and globalzation So, the research of mountain village region have to explained together intra with inter region. In the future, the research of mountain village region has to described all of case of over-depopulation region study,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theory, localities and new regional studies.

**Key words** : Endogenous Organization, Over-depopulation Region, Village Region

### 1. 서론

현재 우리 농업은 ‘세계화·개방화’라는 거부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DDA(도하개발아젠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우리 농업·농산촌이 격동기를 맞이한 가운데 농업·농산촌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이정환, 2005). 특히, 농촌에 비해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이나 연구대상 지역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는 산지촌에 새로운 발전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산지촌은 국토면적의 40%와 경지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국토 공간상의 차지하는 매우 비중이 높고 생활양식이나 신앙, 연중행사, 방언 등 유·무형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어 사회·문화·경제적인 면에서 공익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지

역으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이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산지촌은 사회경제 및 생활에 있어 매우 낙후되어 존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자연적인 제약조건과 함께 정부의 개발 우선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이며 이것은 산촌에 인간활동의 공간인 정주기반을 크게 약화시켜 인구기반을 교란시킨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유우익, 1988).

산지촌은 척박한 토양과 협소한 경지 규모로 작물의 대량생산이 힘들고 농기계는 물론 사람조차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경사도에 따른 농업생산성 저하, 작물 성장에 적합하지 않는 기후 등 불리한 자연조건으로 농산물의 상업화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유우익, 1988). 또한 정부의 정책이 있어서도 산지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농로 개설, 발기반 정리사업, 관개시설, 저온저장고, 특판장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은 물론 의료시설, 도로, 학교, 문화회관 등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관계로 산지

Corresponding author : Oh, Nam-Hyun  
E-mail : namhnoh@hanmail.net

촌의 사회·경제·문화적 기반은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현재 우리 산촌은 첫째, 산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젊은 쇄신가의 정착기피로 새로운 소득작물 도입 및 개발결여 둘째, 도로 불량으로 인한 대도시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 곤란에 따른 산지 작물의 판로상의 애로 셋째, 비탄력적인 농산물 가격과 불안정한 시장 구조로 인한 농산물의 빈번한 가격폭락 현상 발생 넷째, 농로 미개설과 소규모 농지와 영세한 영농규모로 인한 기계화 및 상업농 곤란 다섯째,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특산단지 시설의 미설치로 2, 3차 산업부문의 젊은층 취업기회 상실 및 농한기 유희인력에 대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서울대학교농업기술연구소, 1987, 이광원외, 1993, 유왕열, 1974).

이러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 산촌의 농가소득은 평야지역의 60~70%에 불과하고(이광원외, 1993) 극심한 인구유출로 촌락 정주기반이 와해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경향속에서도 일부지역은 주민주도의 관광개발이나 상업적 작물 재배 등의 능동적인 국지적 전략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관계를 재편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최소화 내지 정체시킴으로써(이한방, 2000) 존폐위기를 극복하여 도시에 뒤떨어지지 않는 고소득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지촌에 있어서 정주권 강화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각되고 일부지역의 상업적 산지농업지역으로 재편·발달되자 1980년 이후 산지지역 즉, 산촌과 산지농업에 관한 연구가 그 이전에 비해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크게 발전하였고 연구범주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촌락의 입지특성, 산촌주민의 생활양식, 산촌의 진흥방안 등 특정주제에 맞춘 결과, 인간의 정주공간으로서의 『산지촌』의 실체를 규명함에 한계가 있다. 즉, 특정지역의 본질적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취락, 산업 그리고 사회구조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그 지역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과 현재의 특성을 동시에 파악하여야만 지역 내부의 구성 요소 간들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통일체로서 산지촌에 대한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Duncan, O. T., 1964). 그러나 현재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의 부재가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오남현, 2000).

이러한 문제에 인식하여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통한 산지촌 연구의 한계성을 살펴보고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적실성 있는 산지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적용 대상지역은 소단위인 리

및 마을 단위로 특히, 도시화 및 개방화·세계화로 최근 토지자원과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고랭지 채소 및 약초 재배와 관광지로 변화시켜 보다 대도시 등 상위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소단위 산지촌의 형성 및 발전과정, 산지농업경영 형태변화, 내생적 주민조직의 역할 변화 등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 II. 한국 산지촌 연구의 전개과정과 한계

우리나라의 산지촌에 대한 연구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첫째, 촌락적인 측면, 둘째, 사회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산지 농업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그 연구대상과 전개과정, 그리고 한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촌락 측면에서의 연구는 1960년대 중반에 이루어 졌는데 주로 사회학자들에(한상복, 1964)의해 생활의식, 종교, 의식주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 후 지리학자들은(강대현, 1966, 유왕열, 1974) 취락의 입지, 형성과정, 형태 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자료 한계 등으로 현황분석의 시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옥한석, 1985). 1980년대 이후부터는 산지촌이 새로운 정주공간으로서 인식되자, 산촌의 진흥방안에 대해 연구가 되었다(유우익, 1988, 오홍석, 1985, 김일기 1999). 이들 연구를 기초로 산촌발전 방향 제시에 관한 연구(농촌경제연구원, 1995)와 산촌종합개발계획 연구(배재수, 1993, 김찬기의, 1995, 배재수와, 1993)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 대부분은 순수한 촌락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와 거시적인(전국 국토공간상에서)차원에서의 산촌 유형과 분포 그리고 지역개발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소단위 지역인 국지성 연구와 더불어 촌락의 유지 핵심적인 요소인 산지농업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산지촌의 사회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1980년대에 이르러 일부 지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오홍석(1984, 1992)과 이한순(1984) 등은 산간촌락에 대한 과소 실태와 진흥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김斗哲(1995, 1997)은 농산촌의 인구감소와 과소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조직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는 산지촌에 대한 새로운 연구영역의 확대에는 공헌하였으나 산촌 존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지산업과 관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한편, 산지농업에서의 연구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1970년까지, 주로 화전농업에 중심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

다. 화전면적이나 인구에 주제를 두고 화전에 대한 병폐를 다룬 보고서가 대부분이다(옥한석, 1985). 1970년대에 와서는 자연적으로 불리한 산지농업이 시장과 결합되어 수익성이 높은 지역으로 변화되자 환금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이용 형태에 관하여 논의(조동규, 1974)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와서는 농업의 경영규모, 노동력, 자·소작관계 등 경영특성이나 산지농업개발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 졌다(장병호, 1983, 옥한석, 1991, 김영남 1997).

이와 같이 산지농업 연구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개념 하에 연구 또한 특색 있게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산지촌 발전에 기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표 1>.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세계화·개방화로 대도시 등 상위지역과의 교류 및 대응을 하기 위한 촌락 형성과 발전과정, 농업경영형태 변화, 내생적인 주민조직의 역할변화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반영하지 않고 정태적인 관점에서 산지 주민들의 토지이용을 통한 적응 형태와 경영특성 분석하였다는 점에 한계성이 있다.

표 1. 한국 산지촌 연구의 전개과정 및 내용

연구 대상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이후
촌락	의식, 종교, 의식주 등	입지, 형성과정, 형태 등	정주 공간 등	산촌유형, 지역개발 등
사회	-	-	과소실태 (인구 등)	주민조직 등
농업	화전농업(생계농업)		경영규모, 노동력, 자·소작관계 등(상업농업)	

### III. 세계화 시대의 한국 산지촌에 관한 이론 논의

#### 1. 이론연구를 위한 개념적인 틀

세계화, 지방화 시대 도래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산지촌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맥락에 의한 동태적인 관점에서 공간, 사회 및 산업이라는 산지촌의 구성요소<표 2>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의 본질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산지농업의 기반이자 배태조직인 촌락적인 측면과 함께 산촌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지농업 그리고 촌락과 산업을 존재·발전을 주도하는 인구, 주민조직 측면 등과의 연계시키고 이를 역사적인 접근으로, 동일 수준의 지역과 상위지역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지역의 고유성을 설명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표 2. 산지촌의 구성요소와 요소별 역할

구성요소	주요 역할
촌락	산지농업기반 및 배태공간
농업	촌락유지의 산업
사회(주민조직)	촌락+산업(산지농업) 존재·발전을 위한 조직

이를 유기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과소지역 연구, 내생적 지역발전론과 주민조직, 국지성 연구와 신지역학이다. 이는 상업적 산지농업지역의 소단위 산지촌리 및 마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적 의미로 설명되어진다. 첫째, 과소지역 연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촌락이 해체된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은 주민주도로 상업적 작물 재배 등을 통한 적극적인 국지화 전략으로 인구감소를 정체시켜 존재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이한방, 2000). 따라서 과소지역 연구로서의 산지촌 연구는 기존의 인구 및 주민조직을 포함한 산지농업과 촌락을 연계시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내생적 지역발전론과 주민조직이다. 정부의 투자 및 외래 자본 등 외부요인에 의하지 않고서도 태백산 산지나 영양군 석보면 요원리 등 일부 산지촌은 높은 소득을 얻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내생적인 조직의 힘에 의해서이다(조동규, 1974, 오남현, 2000). 내생적인 주민조직은 촌락유지 및 농업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부족한 노동력, 작물의 판매 등에 공동적으로 대응하고 불리한 산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 판매 등에 있어서 외부지역으로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조동규, 1974, 金斗哲, 1997). 이런 측면에서 개방성과 역사성을 고려하고 있는 국지성 연구와 신지역학의 관점에서 촌락과 산지농업간의 연계에 의한 산지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이라 판단된다.

셋째, 최근 정보 및 교통 발달로 산지촌의 소규모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직접 대도시와 활발히 거래되는 등 소단위 지역이 새로운 생산 및 거래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고 동시에 지역 연구대상도 소단위지역으로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 지역의 고유성은 역사적인 과정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Gilbert, A., 1988).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국지성 연구와 신지역학의 이론이 적절한 대안이 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것을 개념화 하면 아래와 같으며<그림 1>, 이는 이하에서 논의 될 세계화 시대의 산지촌에 관한 이론연구의 준거가 된다.

## 2. 산지촌에 관한 이론논의

이상에서 제시한 틀을 통해 세계화시대의 한국 산지촌 연구에 관한 이론을 아래와 같이 논의될 수 있다. 먼저 과소지역 연구이다. 한 세대이상 지속되어 온 경제개발 정책으로 우리 국토공간은 급속한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최근 크게 쟁점 시 되고 있는 산촌 지역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농산지촌의 구조적 변화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났지만 특히, 지난 30여 년간의 농산지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지역구조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이라 할 수 있다(이한방, 2000). 농산지촌 탈출이라고 까지 표현되는 농산지촌 인구의 급속한 유출과 이동은 그것이 대부분 도시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도시, 특히 대도시의 과밀 문제에 상반되는 이른바 산촌의 과소화 문제 유발이다. 산촌 인구의 유출과 감소가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남아있는 산지촌의 인구와 촌락 및 경제·사회에는 어떤 문제들 야기될 것인지는 산촌 과소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1980년 이후 산지촌의 인구유출과 그에 발생하는 과소화 문제들에 대해서 지리학, 사회학, 지역개발 등 관심영역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되어 왔으며, 연구성과는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도 괄목한 성장을 하였다. 오홍석(1980, 1992), 이한순(1984), 김두철(1995, 1997), 이한방(2000), 윤근섭·송정기(1994), 윤근섭·최낙필(1994) 등은 과소화 문제를 정량적인 측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연구하였다.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오홍석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분석 틀 즉, 인구 및 가수수, 전출농가, 전출지역 등의 지표로 개발하여 과소화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한순 역시 인구감소

율, 가구감소율, 유출시기, 유출 동기를 金斗哲은 사회경제적 관점에 중심을 두고 노동력 대응 방식, 유입, 전출, 농업이용 형태, 생활환경을, 이한방은 인구 및 가구 감소, 고령화, 인구밀도 등을 과소화 지표로 설정하여 이것이 토지이용 즉, 농지 휴경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윤근섭·최낙필, 송정기도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양비, 노년 인구비, 상수도 보급율, 도로 포장율 등을 과소화 지표로 하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고 과소 지역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이들의 연구는 정량적인 지표개발에 의한 현상적인 설명에 중심을 둔 방법론에 입각하여 과소지역에 대한 구조변화를 설명하였다(이한방, 2000). 특히, 이들의 연구에서 선정된 주요지표들은 2가지 유형 즉, 인구유출 관련 지표들과 산지촌 지역변화에 관한 지표로 구분된다. 인구유출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유출형태, 이동의 종착지, 인구집단의 선택성, 유출시기, 유출동기 등을 변화 세부 지표로 선택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구유출의 경과는 기존 산촌 지역의 인구구성, 노동력, 토지이용, 촌락입지, 경제 사회적 활동 등의 변화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어떠한 변수들이 선정되든지 간에 산지촌 과소화 현상에 관한 연구는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의해 발생된 인구유출과 기존 사회 해체 현상이라는 전제하에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소화 현상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의 조직 또는 행위자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지역 자율성의 상실 및 지역사회 해체(윤근섭·송정기, 1994) 수반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지촌 과소화에 관한 연구는 또한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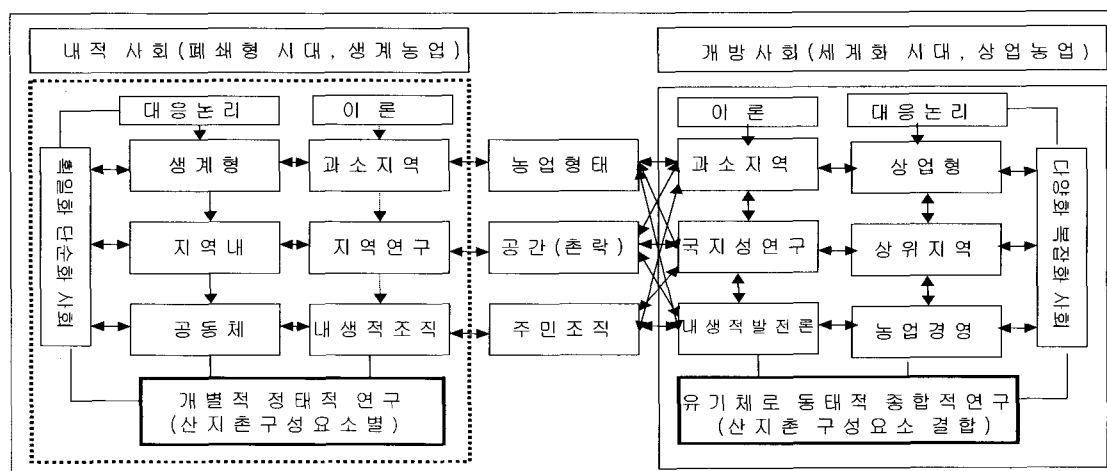


그림 1. 세계화 시대의 산지촌 이론연구를 위한 개념적인 틀

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손철호, 1996, 산림청, 1980). 우리나라의 산지촌은 대체로 인구유출이 계속되었지만 때로는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시에는 산지촌락에 대규모의 인구유입으로 촌락이 크게 번창하였다. 또한 1970년 이후 과소화 과정속에서도 대관령 등 일부 산지촌은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나 외래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특용작물,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거나 이를 관광지로 조성하여 상업적 산지농업지역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저기후, 토지잠재성,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지역구조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지촌 과소화가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지역해체가 아니다. 잔여한 지역주민들의 능동적 대처와 이에 따른 사회·공간적 변화를 산지촌이 계속 유지·발달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그 변화의 행위주체는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지역사회가 문제해결에 전혀 유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대치된다. 이는 과소지역 구조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내적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과소지역 발전의 논리로 그 연결고리를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과소지역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 토지자원 등 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자연자원을 이용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형성 및 지역공간구조의 변화를 통해 과소화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과소화가 진행되는 과정속에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지역주민들의 행위적인 작용으로 촌락 유지에 핵심인 요소인 산지농업의 변화인데, 이른바 상업적 산지농업의 발생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소 산지촌의 연구는 인구 및 주민조직뿐만 아니라 촌락 및 산지농업을 연계한 설명이 요구된다.

둘째, 내생적 발전론과 주민조직이다. 과소화의 지역구조변화의 핵심적 내용은 우선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전환과 국가 주도의 지역불균등 성장과정을 통해 노동력수급의 변화가 초래되고, 이로 인해 한편에서는 대도시 주변에 한층 많은 인구를 집중시켜 과밀지역을 형성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구가 유출된 농산촌을 과소지역으로 만들어 지역 구조를 재편시키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종래의 촌락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과 동질성이 한층 붕괴되어 구성원들간의 이질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도시-농촌-산지촌간의 그리고 지역간의 기능적 연관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중심과 주변의 분화를 낳아 지역간의 계열화, 서열화를 진전시킨다는 쪽으로 정립하

였다(윤근섭·최낙필, 1994).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산지촌의 문제, 즉 과소화에 대해서 먼저 경험한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양국 역시 같은 맥락에서 대응 논리를 전개하였다. 산지촌의 과소화 문제에 대응하는 논리는 크게 2가지 유형 즉, 외부지원과 내생적 발전론으로 구분된다. 외부지원 논리는 고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산지촌이 극심한 인구유출로 인해 존폐위기에 처함에 따라 과소지역을 진흥하기 위한 발전 대안으로 외부로부터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篠原重則, 平成3年, 淨田典良, 平成6年).

그러나 외부요인에 근거한 과소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1990년 초반에는 그 발전책을 지역내부에서 찾아야한다는 논리가 전개되었다. 이른바 내생적인 주민조직과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한 것이 지역발전에 강하게 반영되었다.

외부지역 논리에 근거한 정책의 사례는 우선 일본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은 1965년에 과소화가 진전되는 산지촌에 교통, 교육문화, 후생시설 등의 확충하기 위한 산촌진흥법을 제정하여 지원하였고, 1970년에 와서는 과소지역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을, 1980년에는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 1990년에는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 등을 차례로 제정하여 과소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진흥책을 강구하였다(日本國土廳地方振興局, 1993, 過疎對策の現況). 우리나라의 연구자들도 과소화에 대한 발전으로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요인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하였다. 즉, 과소화 문제에 직면한 농촌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간이상수도 설치, 농로개설, 농업기계화 촉진, 주거개선, 유통시설 확충, 교량 건설, 관광개발이나, 새로운 소득작물의 개발지원, 토지이용의 다양화, 친 환경적인 생태개발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이광원, 1997, 유우익, 1987, 김일기·이민부·박승규·전종환, 1999). 정부 역시, 과소 산지촌을 육성하기 위해 1988년 오지개발촉진법(경상북도, 1990, 내무부, 1998), 1990년 농어촌 특별조치법,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건설, 주거개선, 농로포장, 유통단지 설치, 소득작물개발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산지촌발전에 대한 논리는 외부지원에 의한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이 지역에 침투하는 속도가 느리고 지역발전으로 확산되지 않는 점과 앞으로도 산지촌에 대규모의 자본투입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에 봉착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지

역개발학이나 농업경제학의 분야에서는 산지촌 발전논리를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찾고자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과소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한 자발적인 조직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기능조직인 영농기계화단, 영농법인 등을 산촌의 실정에 맞게 변용시켜 운영하는 이른바, 내생적 주민조직이 과소화 지역 문제를 대처하는 핵심논리로 제시하였다(金科哲, 1997, 佐々本 隆, 1977, 佐々本 隆, 1998). 과소지역의 발전은 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나 외래자본에 의하지 않고 산지의 자연여건을 활용하여 상업적인 농업지역 형성에 근거를 두게 된다. 이러한 조건을 형성시킨 주체는 지역사회주민들로, 이들은 판매, 노동력 등 불리한 산지 환경에 대해 『내생적인 주민조직』을 통하여 극복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산지촌에 관한 일부 연구자들은 과소지역의 발전론으로 내생적인 주민조직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일률적으로 내생적 주민조직에 대한 분석기준을 지역내 주민상호간의 노동교환, 판매, 시세(가격) 정보 제공 등에 치중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에 한계성이 있다.

오늘날 과소화 지역이라 할지라도 생활, 생산현장에 자본논리가 투입되고 일부 지역은 상업농으로 재편되어, 농산물 판매의 경우에 있어 대도시 뿐 만 아니라 세계도시와의 연계가 강화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변화는 상위지역과 하위지역간의 상호간의 관계에 의해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방형 공간 구조 및 지역간의 노동시장이나 판매연결 망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연계체계를 통한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지촌 연구는 국지성 연구와 신지역학을 동시에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국지성과 신지역학 연구이다. 현재 한국 농업과 산촌은 1960년대 이후 전개된 외적 환경의 변화과 더불어 다른 차원의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거대한 흐름에 따라 산업구조가 전면적으로 재편성되는 시기에 있으며 WTO출범으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이전보다는 훨씬 확대된 개방적인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동질적인 공동체적 질서가 해체되어 지역사회가 보다 더 큰 전체사회로 편입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내부에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을 갖는 이질적인 사회를 출현시켜나간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이질화와 외적영향으로 지역내의 하위단위 구조와 기능에 관련된 의사결정이 외부지역(중앙)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및 구체적 의사결정이 지역사회외의 관리와 통제 밖에 놓이게 되는 이른바 지역자율성 상실이 초래되게 된다(Wilkinson, Kenneth, 1986).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즉, 이른바 세계화 과정 속에

서 각 지역의 주체적 대응논리의 확립을 위한 오늘날 지역연구는 도시화와 산업화와 더불어 개방화로 인하여 외부에 의한 지역 자율성 상실 및 지역사회 해체로부터 지역 고유성 및 특수성에 다시 주목하게 되었다. 이를 근거하기 위한 논리로 새로운 지역연구의 등장이다(손명철, 1995, 윤근섭·송정기). 이는 최근 지방의 고유성 및 특수성과 관련하여 활발히 제시되고 있는 ‘생각은 지구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방적으로 하라’,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이다’와 같은 슬로건에 함의된 것으로, 그것은 소단위 지역연구의 패러다임, 즉 일반적이고 구체성의 함의가 있는 국지성 연구의 방법론을 표방한 것들이다(Doreen Massey, 1992).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지역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 속에서 지역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방의 시대를 주도할 주체로서의 지역이 어떻게 자율성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논의와도 같은 맥락이다.

1980년 이후 정보통신 발달로 과소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산지촌에 있어서도 산업자본주의 상품논리가 관철됨으로써 이 지역이 그 자체의 내적 요인에 의한 변화보다는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지역의 거시적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Johnston, R., Hauer, J. and Hoekvelt, G.A., 1990). 지역은 다양한 스케일의 지역들과 매우 유기적으로 중층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변화가 각 하위 지역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도나 양상에서 각각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과거 지역학이 지역을 하나의 폐쇄체계(공간)로 인식하고 한 지역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방법적인 적실성을 찾고자 했다면, 신지역학은 오늘날 같이 개방체계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간 상호작용에 의해 지역이 변화 및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고유성, 역시 이러한 방식에서 찾고자 한다(Gilbert, A., 1988). 이런 요인으로 말미암아 국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국지성은 지역의 고유성을 획득한 장소들(혹은 로컬리티들)에 의해 차별적으로 매개되고, 로컬리티의 지속적인 매개과정은 공간현상을 더욱 더 강화함에 따라 공간의 상대적 자유성은 바로 공간이 가지는 매개적 속성에 의하여 정의(손명철, 1995)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지성 연구는 특정 소단위 산지촌을 사례로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가능하다.

이러한 국지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신지역학은 기존 지역학 즉, 다선적인 역사적 접근법이나 지표 事象형의 기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손명철, 1995) 보다 구체성을 띠면서도 보다 보편타당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연성 등 지역의 다양한 속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1980년대 이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Warf, Barney, 1989,

Thrift, Nigel, 1991, Gregory, D., 1994, Massey, D., 1992). 이러한 신지역학의 특성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지역학(서찬기, 1996)는 첫째, 장소의 보편성을 거부하고 장소의 국지성(locality)을 추가한다(Warf, B, 1988.) 둘째, 국지적 고유성을 추구하되 이론적 개념적 틀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해명한다(Warf, B, 1988). 이는 소단위 지역의 고유성에 대한 신지역학이 지향하는 바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게 도움을 준다(Warf, B., 1988). 보편적인 법칙을 거부하며 올바른 탐구 목표로서 개별적 특성에 대한 기술을 부활하려는 인식론적 특징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장소의 국지적 개별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론적 개념을 동원하여 역사적으로 상세하고 풍요롭게 기록하려는 방법론적 특징을 가진다. 셋째, 전통지역학에서는 국지성을 폐쇄사회 내에서 지역구성요소 상호간(지역 내 구성요소의 결합)의 다양한 결합의 결과로 간주하는데 대하여 신지역학에서는 개방적 사회에서 지역 상호작용(지역간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Massey, D., 1993). 지역의 고유성은 오늘날과 같이 개방체계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넷째, 공간현상과 사회, 인간의 행위실천, 지역의 역사와의 관계를 중요시함으로써 전통지역학과 같이 단순한 기술(thin-description)이 아니라 심층적 기술(thick-description)을 추구한다. 다섯째, 문제 지향적이면서도 대안적이고 이론적이면서 다양한 지역학이다(thrift, 1992). 여섯째, 전통지역학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공간(장소, 지역) 의미의 발견은 물론 국지성이 현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Lefebvre, Soja, 1980, Massey, 1984). 즉 기존의 지역학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공간(혹은, 장소)의 의미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려는 것이며 공간이 가지는 의미의 풍요성을 제대로 드러내는 지적 시도이다. 여섯째, 지역학은 경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신지역학은 실재론에 근거하고 있다.

산지촌 연구도 이러한 방법론에 준거하여 상위공간지역과의 관계속에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과소 산지촌 지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특수성에 입각하여 공간, 사회경제적 관계(행위자) 등을 역사적인 맥락에 의해 심층적으로 그 실체(고유성)를 연구하여야 한다.

#### IV. 결 론

폐쇄적 생계농업 사회에서의 산지촌 연구는 촌락과 사회관계, 산지농업과의 분리를 통한 정태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의 상업농업 사

회에서의 촌락은 인간의 정주공간이고 산지농업은 촌락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로 함께 연계한 종합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이론은 과소지역 연구, 내생적인 지역발전론, 국지성 연구와 신지역학을 제시하였다.

과소지역 연구는 인구감소를 사회의 외적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제시하지만 대관령 등 일부 지역은 고령지 농업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내생적인 지역발전론과 주민조직 역시, 산지촌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투자정책에 의하여 그 요인이 찾고 있었지만 그것은 산지촌의 넓은 공간으로 투자에 대한 과급효과가 크지 않고 일부 산지촌은 주민들의 행위적인 전략을 통하여 상업적인 산지촌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지성과 신지역학은 교통통신 발달과 세계화로 산간 오지까지 상품자본 논리가 투입되어 그곳에서 생산한 각종 농산물이 대도시로 유통되거나 이들의 활동영역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산지촌의 고유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역내부보다는 외부지역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산지촌 연구는 이러한 3가지 측면을 보완,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과소지역에 대한 연구는 외부요인에 의해 지역의 변화가 된다고 하고 지역내에서 일어나는 과소화 문제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차원을 넘어 내적요인을 추가한 설명이 요구된다. 내생적인 지역발전론과 주민조직의 입장에서 기존의 지역발전은 외부 발전론과 내생적인 주민조직의 역할과 관련하여 내부적인 발전론을 동시에 검토하였으나 이들의 관계를 지역내적인 기능에 치중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지역 간의 관계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국지성 연구 및 신 지역학적인 관점에서 지역구조변화는 외부요인 및 내부요인에 의해서 변화되고, 더욱이 교통체계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역이 개방적인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거시적 변화를 배경으로 지역의 고유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참고 문헌

1. 강대현, 1966, 대관령 부근의 산촌의 입지와 형태, 지산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 김상범, 2007, 농촌경관계획지표 개발, 농촌자원과 생활, 2007봄호(109호).
3. 김정호, 2004, 농업·농촌의 현실과 비전, 한국농촌개발연구원 세미나
4. 김영남, 1997, 산지의 개발 및 효율적 이용방안에

- 관한 연구, 호남대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5. 김인, 1987, 산지촌개발을 위한 연구시론, 지역학 논총, 제14호.
  6. 김일기·이민부·박승규·전중환, 1999, 한국 산지촌의 실태와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학회지, 제44권 제1호.
  7. 김일기외, 1999, 한국 산지촌의 실태와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학회, 제34권 제1호.
  8. 김학기, 1981,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고랭지농업의 현황과 전망, 고랭지농업, 제1호, 강원대학교 부설 고랭지 농업연구소.
  9. 배재수, 1993, 우리나라 산촌 문제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배재수외, 1993, 우리 나라 산촌 문제의 사적고찰에 관한 연구, 임업 경제, 창간호.
  11. 산림청, 1980, 화전정리사.
  12. 산림청, 임정50년사.
  13. 서울대학교 농업대학부속 농업기술연구소, 1987, 산지의 효율적 개발방안 연구.
  14. 서찬기, 1996, 지역학의 동향과 지리교육, 경북대 지리교육학과 강의 자료.
  15. 손명철, 1995,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지역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 손철호, 1996, 산촌 지역의 유형 구분과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 임상보, 2002, 지속가능한 농촌지역개발계획 지표의 설정, 한국관계배수, 제9권 1호.
  18. 오홍석, 1980, 한국촌락의 과소 실태와 진흥방안, 지역학 제22호.
  19. 오홍석, 1984, 태백산지의 산촌에 관한 연구, 지역학 연구, 한국지리교육학회, 제9집.
  20. 오홍석, 1985, 한국 산촌의 과소실태와 진흥방안, 지역학 제22호.
  21. 오홍석, 1996, 태백산지의 산촌에 관한 연구, 한국의 농어촌과 환경연구.
  22. 오홍석, 1992, 벽지촌락의 인구감소에 따른 폐촌현상과 정책 대응, 지역환경 5, 동국대학교 지역환경연구소.
  23. 옥한석, 1985, 한국의 화전 농업에 관한 연구, 지역학연구, 제10집, 한국지리교육학.
  24. 옥한석, 1985, 산촌 연구의 동향과 방법론, 지역학 논총, 제32호.
  25. 옥한석, 1991, 전작물 선택을 통해서 본 산지 주민의 환경 적응행태 연구, 서울대사회과학대학 지역학 논총 별호 9.
  26. 유왕열, 1974, 산촌의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 목포교대논문집, 제12집.
  27. 유우익, 1983, 한국의 지역학에서의 지역정책의 논점, 지역학 논총 제10호.
  28. 유우익, 1988, 산촌지역 정주체계의 정비방안 연구, 농업진흥공사.
  29. 윤근섭·송정기, 1994, 과소지역의 형성과 구조특성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제4집, 한국농촌사회학회.
  30. 윤근섭·최낙필, 1994, 과소지역의 구조와 사회적 결속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8집(겨울호).
  31. 이상일, 1990, 실재론의 지역학적 함의와 공간의 상대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총.
  32. 이정면, 1966, 대관령지역토지이용의 현황과 방향, 경희대 국토종합개발연구소, 지역개발연구, 제2집.
  33. 이정환 외, 2001,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4. 오남현, 2000, 상업적 산지농업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5. 이한방, 2000, 과외농촌지역의 휴경화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6. 이한순, 1984, 寡疎·過疎지역의 제문제와 대책 - 강원도를 사례로, 지역학논총, 제11호.
  37. 임학성, 1994, 조선후기 反畷의 성행과 그 배경, 仁荷史學 2.
  38. 장병호·이창덕·심옥, 1983, 고랭지 주요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고소득작물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논문집 (자연과학), 제18집.
  39. 조동규, 1970, 고랭지 토지이용의 변천 : 대관령의 농업적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지역학, 제5호, 대한지역학회.
  40. 조동규, 1970, 태백산지역 농업경영의 구조, 지역개발연구 제3집, 경희대 국토종합개발연구소.
  41. 조동규, 1970, 태백산지역의 토지이용형태의 분석, 경희대 국토종합개발연구소, 지역개발연구, 제2집.
  42. 조동규, 1974, 화전의 토지이용의 토지이용 형태에 관한 연구·경영구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논문집, 제8집.
  43. 한상복, 1964, 한국 산촌의 연구, 사회학 논총 제1집.
  44. 한상복, 1964, 한국 산촌주민의 의식주, 사회학보 제7집.
  45. 한상복, 1966, 한국 산촌주민의 양식과 신앙, 한국사회학, 제2집.
  46. Bennett, J.W., 1969, Northern Plainsman : Adaptive Strategy and Agrarian Life, Aldine, Chicago, p.14.
  47. Bennett, J.W., 1978, The Ecological Transition :



- Cultural anthropology and Human Adaption, Pergamon Press, New York.
48. Bloeler, I.R, Structural Chage in Agriculture, Progress in Rural Geography (ed. by Michael Pacione), Room Helm, 1983.
  49. Doreen Massey, 1992, The Politacal Place of Locality Studies, space, place, and gender : University of
  53. English and French-speaking countr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54. Gregory, D., 1994, Social Theory and Human Geography, Human geography, uni-Minnesota Press.
  55. Warf, B., 1988, The resurrection of local uniqueness, in Golledge, R., Couclelis, H. and Gould, P., ers., A Ground for Common Search, Santa Barbara, Ca : Santa Barbara Geographical Press, p.51.
  56. Warf, Barney, 1989, Locality Studies, Urban Geography, 10(2).
  57. Watson, J. B., 1965. From hunting to horticulture in the New Guinea Highlands, Ethnology, ol.4.
  58. Wilkinson, Kenneth p., 1986, In Search of the Community in the Changing Countryside, Rural Sociology 51(1).
  - 59.金科哲, 1995, 韓國にあける農山村の人口減少に關する研究動向課題, 人文地理 第47卷 第1.
  - 60.金科哲, 1997, 過疎地域の 遷地域と内發的對應に關する-住民組織の變容と地方
  61. 行政の役割にして- 名古屋大學博士論文.
  62. 武田久吉, 1934, 朝鮮の火田民, トルメン, 第2卷 第4號, 講書院.
  - Minnesota Press Minneapolis.
  50. Massey. D., 1992, In What Sense a Regional Problem, space, place, and gender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51. Duncan, O. T., 1964, Social organization and the ecosystems in Handbook of Modern
  52. Gilbert, A., 1988, The New Regional Geography in
  63. 浮田典良, 平成6年, 日本の農漁山とその變容, 東京 : 大明堂.
  64. 佐マ本 隆, 1977, 生産組織にあける 經營的 性格の 形成に ついて, 農林業問題研究.
  65. 佐マ本 隆, 1998, 韓國にあける 農業の 展開過程と 村落, 信州大學農學部紀要 第26券 第1・2號.
  66. 石井英地, 1992, 地域變化とその構造, 二宮書店.
  67. 篠原重則, 平成3年, 過疎地域の變遷と山村の動向, 東京 : 大明堂.
  68. 日本國土廳地方振興局, 1993, 過疎對策の現況.
  69. 林和生, 平成元年, 丹波山地にあける村落の 空間構造形と社會構造, 日本の農山 漁村産と 變容 : 大明堂.
  70. 朝鮮總督府篇, 1933, 火田及び火田民, 朝鮮の聚落 (全篇).
  71. 川 茂, 1973, 農村の變遷と普及活動, 全國農業改良普及協議會.
  72. 青木伸好, 平成元年, 村落變化の研究動向と問題点, 日本の農山漁村産との變容 : 大明堂.
- 
- \* 접수일 : 2007년 11월 6일  
 ■ 3인 익명 심사필